

영암, 청년 스마트팜 창업 메카로 떠오른다

농림부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 공모 선정

딸기 등 스마트 농업단지 구축·임대...청년 창업농 육성

청년이 창업으로 미래농업을 선도할 산실이 영암군에 들어선다.

영암군이 농림축산식품부 공모 ‘2024-2026년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에 최종 선정돼 국·도비 152억 원을 확보했다고 3일 밝혔다.

농림부의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은, 고품격 및 노동력 부족, 기후위기와 농산물 가격 급락 등 농업·농촌이 직면한 위기를 지역 스스로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모.

영암군은 충남 서산시, 경북 예천군과 이번 공모 최종 선정 전국 3개 지자체로 이름을 올렸다.

이로써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와 월출산국립공원 생태탐방원 유치에 이어 연말 미래농업 부문에서도 민선 8기 영암군은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영암군은 이번 공모에 대비해 올해 3월부터 전라남도도와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준비해왔고, 그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



영암군은 공모 선정에 따라, 2026년까지 총 20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덕진면 장선리 7.8ha에 임대형 스마트팜 4.36ha를 조성하고, 청년창업농 육성에 들어간다.

초기 높은 투자비용이라는 진입장벽 때문에 창업에 임두를 낼 수 없는 청년농업인에게 적절한 임대료를 받고 이 스마트팜을 임대한다.

이어 농업경영 기회 제공에서 재배 기술 교육, 수익창출 및 초기 자본축적까지 종합 지원을 이어간다는 방침

이다.

영암군은 임대형 스마트팜에 18세~39세의 전남 청년농업인 2~3명이 팀을 이뤄 신청하면 0.4ha 이상씩 빌려준다.

기본 임대기간은 3년이고, 평가를 거쳐 최장 3년까지 연장해 주기로 했다.

임대료는 토지와 시설평 가액의 1% 이상이고, 경작 특례방식 등을 적용해 영암군에서 추후 결정한다.

재배작물은 딸기·방울토마토·파

광양 중마동 버스터미널서 세계 에이즈의 날 캠페인

광양시는 4일 중마동 버스터미널 일대에서 한국에이즈퇴치연맹 광주 전남지회와 함께 에이즈 예방 및 감염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해소를 위한 ‘AIDS to Zero’ 거리 캠페인을 벌인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제36회 세계 에이즈의 날(12.1)’을 맞아 시민들을 대상으로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예방에 대해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이번 캠페인 외에도 약 1개월간 지역 내 설치된 전광판,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 활동을 진행한다. 또한, 보건소 방문객을 대상으로 성매개 감염병 예방 행동 실천을 유도하기 위한 홍보물(리플렛)을 배부하는 등 소규모 오프라인 홍보를 병행할 계획이다.

김진식 보건행정과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에이즈에 대한 우리 사회 인식이 새롭게 변화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면서 “잘못된 정보로 인해 사회적 차별이나 편견이 발생하지 않도록 올바른 정보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순천, 위생단체 연합

김장 담그기 행사 개최



순천시는 겨울 김장철을 맞아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전남도지회 순천시지부 주관, 21개 위생단체 및 외식업소 후원으로 식품·위생단체 및 외식업소 연합이 참여한 김장 담그기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

위생단체 임원진과 시 보건소 직원 100여 명이 지난 1일 문화건강센터 야외에 모여 외서면 집집마다 순천농협 남도김치 양념을 직접 버무렸으며, 시는 김치 1,000kg을 지역아동센터 등 취약계층 중 200세대에 전달했다.

행사 중 유현호 순천시 부시장이 김장 방문하여 김장 봉사자들을 격려하고 식품·위생 업소의 운영 상황을 청취하는 등 소통의 시간도 가졌다.

심기섭 식품위생과장은 “식품·위생 관련 단체는 박람회 입장권 사전 구매뿐만 아니라, 박람회 기간 위생을 위한 철저한 노력을 통해 식중독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는 등 일류 시민의 면모를 보였다”고 전했다.

김희수 진도군수 “아름답고 건강한 미래혁신 진도 조성 목표”

시정연설 통해 내년도 군정 운영방향 제시

김희수 진도군수가 1일 진도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92회 진도군의회 2차 본회의의 시정연설에서 2024년도 군정 운영 방향을 밝혔다.

먼저 김 군수는 올해는 각종 공모사업에서 11월말 현재 역대 최대 규모인 68건에 1,140억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는 등 진도군의 발전 잠재력과 역량을 확인할 수 있었던 중요한 한 해였다고 평가했다.

내년도 군정운영방향은 ▲미래지향형 농수산업 집중 육성 ▲군민 모두가 행복하고 따뜻한 복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구축 ▲문화예술 자원·자연경관 특화 관광지 조성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정비 ▲생활인구·청년인구 유입 지방소멸대응 ▲대규모 사회기반시설(SOC)사업 국가계획 반영 등 7가지다.



먼저 ‘미래지향형 농수산업 집중 육성’을 위해서는 농업현장 인력난 해소와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 확대와 숙소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친환경 농기계 지원과 교육을 통해 친환경 농업단지를 확대 추진한다.

또한 수산종자 실용화센터 건립사업, 김 산업 진흥구역 지정 추진해 수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미래양식

프리카와 최근 시장에서 수요가 많은 샐러드용 엽채류를 권장한다.

스마트팜에는 생산량 증대와 작업 효율성, 재배작목 전환 용이성 등을 고려해 최첨단 시설을 갖춘 유리온실 10동이 들어선다.

딸기는 상하이동식 행잉베드 시스템으로 생산량 2배 증대 효과를, 토마토·파프리카는 행잉거터 시스템으로 효율성과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다.

특히, 겨울철은 온화하고 여름철은 서늘한 영암군의 기후 특성에 적합한 친환경 고효율의 냉난방 공기열 히트펌프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해 연중 4계절 생산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영암군은 이런 최신 시스템으로 작물의 안정적 생산, 높은 시장경쟁력 확보, 청년창업농 소득 증대 등을 일궈내는 ‘영암형 스마트팜 모델’을 정착한 다음, 지역 전체에 전파할 계획도 세워두고 있다.

우승회 영암군수는 “청년이 첨단기술로 미래농업을 선도하는 ‘영암형 스마트팜 모델’로 농업과 농민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보일 것이다. 동시에 농업으로 지방소멸과 기후위기까지 극복해내는 전국 모범도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영암=김형두 기자

순천시 “이제 청년 창업도 순천하세요”

순천 청년 창업가, 쇼핑라이브서 지역 초콜릿 선보여

순천시는 청년 창업지원 사업장 ‘달다쿠’가 지역 특산품을 활용한 ‘전국 팥도유람-전남 순천 매실, 복숭아생초콜릿’을 네이버 쇼핑라이브를 통해 판매했다고 밝혔다.

시의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창업 지원을 받은 ‘달다쿠’는 지난 11월 1일 네이버가 소상공인 성장을 위해 주관한 ‘SME(소상공인) 브랜드 런칭’에서 우수상을 받아 이번 쇼핑라이브 1시간 방영 혜택을 얻었으며, 지난 11월 27일 약 100만 원의 매출을 냈다.

또한, ‘달다쿠’는 생초콜릿 외에 9개 크레용 초콜릿을 선보이고 매 시즌 발렌타인·크리스마스 상품을 판매하는 등 청년창업의 긍정적 인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시는 “2023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을 통하여 청년근로자가 근무하는 22개 업체에



인건비를 지원하고, 2개 업체에 청년창업을 지원하는 등 청년창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외에 17개 업체가 입주한 ‘청춘창고’와 12개 기업이 입주한 ‘창업연당’이 큰 호응을 보여 앞으로도 청년창업과 고용 확대에 전폭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순천=조순익 기자

영광, 8405농가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영광군은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249억 2700만 원을 확정하고 1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 도모를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 등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은 8,405농가이며, 12,582ha면적이 해당된다. 이 중 농가 단위로 지급될 소농직불금은 2,614농가, 31억 원을 지급하고, 면적직불금은 5,791농가, 218억 원을 지급한다.

올해부터는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요건 중 2017~2019년 3년 중 1회 이상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여야 한다는 법률조항이 삭제되어, 지난해 대비 신규신청농가는 768농가, 신청면적 269ha, 지급액은 5억 52백만 원이 증가했다.

영광군 관계자는 “공익직불금이 어려운 시기에 농업 현장을 지키는 농업인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길 바란다”라면서 “내년에는 소농직불금이 인상될 예정인 만큼, 농업인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광=서종민 기자

‘제10회 광양시 장애인체육대회’ 성료

광양국민체육센터서 화합·교류의 장 펼쳐



광양시와 광양시장애인체육회가 주최·주관하는 ‘제10회 광양시 장애인체육대회’가 지난달 30일부터 12월 1일까지 이틀간 광양국민체육센터에서 2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장애인체육대회에서는 탁구, 한궁, 율러, 당구, 론볼, 골볼, 보치아, 볼링, 역도, 실내조정, 게이트볼, 양궁, 빙상, 배드민턴, 좌식배구, 바둑, 파크골프, e-sports 18개 종목이 진

행된 가운데, 선수들은 서로에 대한 격려와 응원을 아끼지 않는 가운데 화합과 교류의 장을 펼쳤다.

광양시장인 정인하 광양시장에인체육회장은 “지난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 우리 선수들이 13개의 메달을 획득해 광양시의 위상을 드높였다”면서 “앞으로도 장애인들이 본인들의 역량을 모두 발휘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광양=조순익 기자

고흥, 공직자 대상 장애인식개선 교육 실시

올바른 가치관 확립·차별 없는 사회 분위기 조성 앞장

고흥군은 최근 군청 팔영산홀에서 장애인 업무 담당자를 50여 명을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교육 및 사회보장급여 업무 실무교육’을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장애인식개선교육’은 장애인 유무를 떠나 공감과 이해를 바탕으로 직원의 직장 내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고,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로 차별 없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매년 실시하고 있는 장애인식개선교육은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 사회통합에 이바지하기 위한 법정 의무교육이다.

이번 교육 참석대상이 아닌 전 직원은 사이버를 통해 장애인식개선

교육에 참여했다.

이날 교육은 고흥군 장애인복지관 소속 차정환 강사가 ‘직장 내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제고’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이와 더불어, 보건복지부 행복이음 핵심요원으로 활동 중인 고흥군 류진국 주무관의 사회보장급여 업무와 관련해 사회복지 실무 현장에서의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교육까지 총 3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강춘자 주민복지과장은 “앞으로도 이와 같은 교육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없애고, 나아가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흥=신용원 기자

이병노 담양군수, 정례조회서 “내년 사업 차질 없는 준비” 강조

군정 발전 유공자·민간기록물 수집공모전 수상자 시상

담양군은 지난 1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공직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2월 정례조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례조회에서는 2023년 군정 발전 유공자와 민간기록물 수집공모전 수상자에 대한 시상상을 진행했으며, 이병노 군수는 올해 군정 분야별 성과를 언급하며 군민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담양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준 공직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 군수는 “내년은 불확실한 경제여건과 정부의 건전재정 정책 기조로 우리군도 재정여건이 녹록치 않

다”며 “민선 8기 현안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공모사업을 비롯한 연관 사업발굴 등 발 빠른 전략적 대응과 내년도 군정 운영 방향 실현을 위한 실행력 높은 사업계획 수립 등 준비를 철저히 해달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오는 12월 23일부터 25일, 3일간 열리는 ‘2023 담양 메타 뮤직 페스티벌’ 개최를 위한 안전점검과 교통대책 마련 등 지역을 대표하는 크리스마스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세심하고 빈틈없는 축제 준비를 강조했다.

이병노 군수는 “본격적인 동절기



에 접어든 만큼 겨울철 재난과 안전사고 대책도 내실있게 추진해줄 바란다”며 “연말정산 시기인 만큼 소액 기부자들이 고향사랑기부제에 많이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 홍보에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담양=조승태 기자

곡성 독방마켓 로컬브랜딩 사업 ‘행안부 장관상’ 수상

곡성군이 2023년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활성화 지원사업에 ‘독방마켓’에 날개를 달다’가 선정돼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3일 밝혔다.

행정안전부에서 지난 3월에 3월에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활성화 지원사업’(약칭: 로컬브랜딩 사업)은 전국에서 10개 지자체가 선정됐다. 이 중 곡성군을 포함한 4개 지자체가 지역 활성화 유공으로 표창을 수상하게 됐다.

이에 따라 곡성군은 독방마켓 내 스티커 사진기를 배치하여 독방마켓 로

컬브랜딩 사업을 홍보할 계획이다. 독방마켓에 스티커 사진기를 배치해 무료로 사진 촬영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로컬브랜딩 홍보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또한 12월에는 독방마켓에서 크리스마스 포토존을 조성해 연말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행사도 진행된다.

행정안전부 ‘로컬브랜딩 사업’은 지역 고유자원과 특색을 활용해 생활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주민은 살고 싶고 관광객은 찾고 싶은 지역을 만들기 위한 사업이다. 이 사업에 선정된 지자체는 첫째 특교세로 3

/곡성=황상연 기자